일본 애니메이션

학번-22141292 이름-판커신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름다운 화질과 황홀한 줄거리로 많은 한국 친구들을 매료시켰다.많은 한국의 어린이, 초, 중,고 학생, 심지어 대학생까지 모두 일본 만화의 열렬한 팬이다.「 세인트투사 」, 「 명탐정 코난 」, 「 해적의 왕 」, 「 죽음의 신 」, 「 나루터 」 등 우수한 애니메이션작품들은 각기 전기적인 주인공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그렇다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일본 애니메이션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우선 일본은 세계 1위의 애니메이션 강국이다.애니메이션의 발전모식은 선명한 민족적특색을 띠고있다.일본 애니메이션의 발전 과정은 대략 1917-1945-맹아기, 1946-1973-탐구기, 1974-1989-성숙기, 1990-현재-세분화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둘째, 일본만화의 특징은 주로 그 시대성과 민족성에서 구현된다.

만화소재의 시대성:제2차세계대전이후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보면 제재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다.전후 초기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본인의 정신적 재건을 갈망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위대한 만화가 데쓰카 도시마이다.그의 부상은 일본 만화 세계에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1952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무쇠팔 아톰에서 데쓰카는이 작은 로봇에 순진하고 선량하며 용감하고 굴함없는 정신을 불어넣고 있다.전후 일본인의 정신적 요구에 부응해 폭넓은 독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이었다.

애니메이션 풍격에서 시대성을 본다:일본식 풍격의 만화를 개척한 사람은 역시 데쓰카 오사무.그는 철완 아톰에서 영화 거울 모션 기법을 사용하여 만화 이미지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었고, 또한 줄거리로써 중점을 설정하였다. 이미지 효과를 추구하지 않고, 역할의 창조에 중점을 둔다.이 독특한 일본식 애니메이션 창작 풍격을 영화에서 주인공 아톰의 용기와 열정을 볼 수 있다.아톰은"기계"이다, 그의 경험은 모든 아이들이 성장 중에 모두 겪게 되는 이상화된 환상과 현실의"여드름"이다, 그리고 무력한 타협 작가와 독자는 평온한 마음 대화, 교사나 학생처럼 더 친구처럼 전체 애니메이션풍, 단순하면서도 명쾌하다.

일본만화의 민족성은 사물에 대한 애도와 무사도정신 등 면에서 구현되며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긴다.

물애콤플렉스:물애는 일본민족의 심미의식이다.미에 대한 인식과 리해는 한 민족문화의 발전방향을 직접 결정한다.물애란 대체로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주로 인물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비애와 괴로움과 답답한 정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의 신세와 현실 사회의 각종 모순 및 무상한 운명이 한데 얽히어 형성된 물애에 대한 미적의식이다.금민 감독"밀레니언 여자 여우"에서 명배우 치요코 전기 인생, 열쇠, 처음부터 끝까지 첫사랑으로 인해.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세월은 늙었지만 그녀가 간절히 추구하는 것은 결국 단지 환영일 뿐이다.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슬픔과 슬픔 그리고 비애와 애련의 혼합으로 된 감동정서는 사물의 슬픔미학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석이다.

무사도 정신:일본인의 내면적인 정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쿠라와 사무라이 칼이다.벚꽃은 필 때는 순결하고 열렬하지만 질 때는 부드러운 아름다움속에 비장한 정서를 띠고있다.사쿠라는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시게 빛나다가 곧 시드는 특징이 바로 일본인들이 감상하는 기질이다. 인생은 짧고 세상일은 무상하여 생명이 가장 찬란할 때 사쿠라가 바람따라 사라지듯 일본민족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되었다.일본의 장기간의 봉건시대에서 형성된 사무라이와 사무라집단은 사회의 주류적지위를 차지하였고 사무라이의 내적인 정신세계속에 지배계급이 자리잡았다.현재 무사들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무사도 정신도 이미 희석되었다.무사도의 정신에서 형성된 의지가 육체를 이겨낼 수 있다는 리념은 만화작품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다.< 성투사 > 중의 불사하는'오소강'부터 < 마신단의 투사 > 중의 의지가 굳은'마신의 투사'까지, 적아의 실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든, 심신의 심신이 얼마나 큰 상해를 입든, 자신의 신념과 꿈이 견지하는 정의는 애니메이션 중의 무수한 주인공을 지탱하여 무진장 승리를 쟁취하게 한다.

소승대 (小승대):일본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에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성격으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으름이나 다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혹시이 사람은 반항적이고 이상한 인물이지만 내심에는 언제나 전통적인 선량한 면이 있다. 그는 매우 고생을하고 항상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며 또 틀림없이 온갖 좌절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이런 사람들은 흔히 최후의 영웅 또는 즉시의 영웅이 된다.전통적인 영웅 관념을 뒤엎습니다.이는 다년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성의 큰 흐름이다. 우리가 가장 익숙히 알고 있는이 방면의 전형으로는 「 슬램덩크 」 중의 체리무화다오 (벚나무꽃도)를들 수 있다.늘 낙제하는 열등생은 뛰어난 학생보다 더욱 친화력이 있다.이렇게 되면 독자들은 나도 노력만 하면 할수 있다는 심리가 생기기 쉽다.요컨대 노력이 첫번째이고 승패를 막론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것이 첫번째이다.또 례를 들면 ≪ 유유백서 ≫, ≪ 룡주 ≫와 같은 소년열혈 애니메이션인데 만화이야기에서 적들은 흔히 초기에 매우 강하며 심지어 같은 수량급도 아니다.그러나 주인공은 언제나 어떤 정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사랑, 정의, 우정 같은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그들은 번마다 타도되였다가도 번마다 기사회생하였으며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강해졌고 승전하여 나중에는 적을 물리쳤다.인물 개성의 묘사든, 유형 패턴의 확정이든, 일본인은 항상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길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각양각색의 인물과 사건의 묘사를 통해 세계에 강한 민족이 갖추어야 할 품격을 교묘하게 암시하고 강조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 언제나 낯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그들은 진정으로 주인공을 도울 수 있다.보답을 주든 주지 않든.그렇다면 우리는 태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볼 수 있을까요?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요즘 이렇게 약해졌다.우리는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덜 의심하고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생활속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것이다. 네가 어떤 때에 어떤 일에 부딪치든 상관없다.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나는 우리가 좀 덜 망연하고 겁을 먹고 좀 더 용감하고 성실하게 삶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삶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마음.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앞으로 …